

민선 7기 공약사업 본격 시동

순창군, 공약사업 농민행복·관광·문화·교육 등 주민공청회 개최

순창군의 민선 7기 공약사업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군은 지난 5일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업 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 순창군의회 정성균 의장, 관내 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순창군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획실장의 총괄보고, 순창군수의 공약사업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군의 민선7기 공약사업은 ▲농민이 행복한 순창 ▲관광이 돈되는 순창

▲문화가 숨쉬는 순창 ▲교육의 일번지 순창 ▲복지가 먼저인 순창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 등 6개 분야에 45개 사업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인계 악취지역 민원처리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현재의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돈사의 건물 균열부분 보수작업을 완료했고, 유음미생물(BM) 보급을 확대해 악취발생요인을 줄여나가 주민들의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순화지구 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꼬마무 아동돌봄센터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은 공청회에 나온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 미래 순창을 만드는 중요한 초석이 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추진에 중요한 영랑분이 되도록 하겠다"며 공약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건전 운영을 위한 미래설계

남원시 세미나 성료

남원시는 지난 5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정부회계학회에 요청해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의 일환으로, 남원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미래 설계라는 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원시 민선7기의 예산규모가 7,500억원을 돌파하고, 채무 전액 상환을 이뤄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낸 재정상황을 되짚어 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재정성과연구원 강인재 원장이 '남원시 재정분석을 통한 예산과 회계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남원시청 예산담당자가 '재정지립도 펼쳐에서 탄생한 온

새미로의 지방예산 연구'라는 주제를 준비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운영일 박사, 강원대 정광화 교수, 배재대 김현동 교수, 세명대 박지영 교수, 남원시의 회 양해석 부의장, 남원시 이영근 기획실장이 토론자로 나서서, 시의 재정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열린 토론의 장도 펼쳐졌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종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남원시 결산서 체계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덕성여대 김이배 교수의 발제에 이어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박정규 회계사, 배재대 박상연 교수, 용인송담대 박미희 교수, 남원시 장진숙 산동면장, 남원시의회 김광수 전문위원 등이 결산에

대한 문제점과 결산서의 간소화로 정보의 생산, 정보의 검토, 정보의 이용 측면의 효율성 증대의 방안을 제시했다. 제3세션은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교부세 개편방향과 남원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의 발제에 이어 인하대 정창훈 교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양영철 박사, 한남대 이장순 교수, 단국대 임동완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원주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주민행복과 직결되는 지방행정의 최대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향후 남원시 미래를 설계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소충제례행사 개최

임실군 소충제례위원회(위원장 마형수)는 지난 5일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를 추모하기 위한 제62회 소충제례 행사를 성수면 소재 소충사에서 개최했다.

소충제례행사는 1907년 일제에 의해 고종이 강제로 양위되고 군대가 해산하자 임실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투쟁하다 순국한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의 넋을 위로하고 기리기 위한 제례의식이다.

심 민 군수는 "순국선열에 대한 제례를 통해 충효정신을 받들고, 아울러 임실출신 의병들의 뜻을 계승 발전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소충제례위원회가 28의사를 추모하기 위한 소충제를 개최했다.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 국악대제.

내일 대한민국 국악대제

남원시 윤봉음 국악의 성지서

사)민속국악진흥회(이사장 김익규)가 주관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국악대제가 오는 9일 남원시 윤봉음 국악의 성지에서 전국의 유명 국악인 및 남원지역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국악대제는 대한민국의 국악 선인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명창 송홍록 선생을 비롯 훌륭한 판소리 명창들과 명인들이 배출된 남원에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12년째를 맞았으며, 대제는 식전 공연, 개제, 초헌례, 축문낭독,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분향, 모역 참배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된다.

식전행사는 진도소릿길보존회의 식감굿과 국립민속국악원의 살풀이, 남원시립국악단의 정화무, 보림에 이어 민살풀이 춤의 대가

故조갑너 명인의 딸 정명희 교수의 헌무와 김수현 명창의 헌가 등이 진행된다.

이날 제판에는 초헌관에 제1회 춘향국악대전대상 수상자 조상현 명창, 아헌관에 악성 옥보고 기념사업회 김무길 회장, 집례는 전인삼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가 맡는다.

한편, 국악의 성지는 남원시 윤봉음에 2007년도에 개관해 악성 옥보고, 가람 송홍록, 국창 송만갑, 국창 박초월 등 49위의 국악선인 위패가 봉안돼 있는 곳으로, 이곳에는 국악 관련 전시관 및 체험실 등이 시설되어 있어 해마다 각 학교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등 연중 국악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국체육대회 안전요원 위기대응능력 교육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5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에 배치될 안전요원들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3층 강당서 실시했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원 순창지역에서는 테니스, 레슬링 등 5종목이 치러지며, 남원춘향골테니스장, 남원관덕정, 순창공설운동장에 배치되는 안전요원들에게 비상시 초기대응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



으로 개최되었으면 한다며,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경기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27개교 초등학교장 간담회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기관, 관장 김수경)은 지난 5일 2018남원혁신교육특구 유아·특수·초등학교장 경영리더십 배움두레 워크숍에 참여해 지역 27개교 초등학교장과 함께 지역 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관은 간담회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한 아동학대의 유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사례개입 과정을 소개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과 예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 박대현팀장은 "학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호 역할 이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들에게 실제적이고 적절한 아동보호서비스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관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초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기관으로, 2008년부터 학대피해아동지원사업, 아동학대에방교육 및 캠페인, 심리치료,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학대피해아동 멘토링, 부모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산동면 화재 이웃 성금 전달

남원시 산동면은 지난날 14일과 30일에 발생한 뜻밖의 화재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게된 이웃에게 각각의 성금 200만 원인 400만원을 전달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웃은 산동면 대상마을 조래찬씨와, 부절마을 김경영씨이다.

이날 전달에는 장진숙 산동면장, 서명원 발전협의회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경영건설은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다는 뜻으로 동참했다.

장진숙 산동면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주택 화재로 걱정했는데 면민 전체가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상부상조한 면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대로된 보금자리가 마련 될 때 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